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K-컬처 세계화의 교훈과 과제
[발제자] 박광무 한선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일 시]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9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기조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예술의 전위성과 반체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예술은 건강하고 성숙한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의 보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화의 독립변수성과 선도위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는 인류와 민족흐름의 축적으로 도전과 창조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문화현상이 정치경제를 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문화현상이 반도성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인식과 행동이 바뀐다.
- 문화를 정치·경제·사회활동의 수단 혹은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문화적 환경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문화 활동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활동이 한 단계 성숙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예술인 동원 행태를 탈피하고 오히려 정치인이 예술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문화인식의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 외교안보 대응에도 문화의 힘을 활용하고 발현할 필요가 있다.

◆ 세계적 문화의 흐름과 K-culture

- ◆ 세계 문화의 흐름이 거석문화에서 소프트 문화,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절대권력에서 민중에까지 옮겨왔다.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인간으로, ‘멈춤’에서 ‘움직임’으로 변화했다. 과거 유산인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양한 신전과 성당 그리고 여러 석조물들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문화유산과 예술작품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블록체인 매체에 저장한 캐빈 아보쉬의 크립토아트 장미,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작품 등 미디어 문화로 변화한 오늘날의 세계적인 새로운 문화흐름에서 체감할 수 있다.
- ◆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영상이 세계를 강타했다.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대신 OTT(Over The Top)로 개개인이 영상을 자유롭게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왔다. OTT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 있다. 현재 OTT시장은 넷플릭스를 선두주자로 디즈니+, 애플tv+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에서 개발한 OTT로는 티빙, 쿠팡플레이 등이 있다.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최근 애플에서 만든 OTT 플랫폼인 애플tv+의 <파친코>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이는 애플tv+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야심차게 도전하는 작품이다. 윤여정은 지금 우리시대에 가장 글로벌한 스타가 되었다.
- ◆ 기생충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약간은 불편한 영화다. 그러나 글로벌 소비자는 그렇지 않았다. 봉준호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인디언복장을 한 송강호는 그가 기생하여 살고 있는 집 주인을 이유 없이 찢어 죽인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기생충>이 정통자본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영화임을 암시한다. ‘갑’시대의 퇴조와 ‘을’시대의 세계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인은 이에 공감하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기생충의 시대적·문화적 의미는 세계인의 공감이다. 세계인의 공감을 유발하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기생충은 배경장면의 독특한 한국적요소와 개인적체험이 녹아 보편화된 정서가 가장 개인적이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예술이 혼의 불태움에서, 극(極)과 극(劇)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공연도 OTT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다양

한 K-콘텐츠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공연예술분야는 메타버스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메타버스 기반 아이돌인 에스파(aespa)로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있고, 한예종은 아트앤테크놀로지 랩을 통해 융·복합공연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K-culture의 세계화 전략 중 하나로 팬 플랫폼을 글로벌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 미술시장의 경우에도 유수의 국제 갤러리들이 한국 개관을 서두르고 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순수미술(fine art) 분야 등 전반적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며, 시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 ◆ 비대면 시대의 문화는 제3의 르네상스를 촉진한다. 이는 유쾌한 5차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만물인터넷(IoE)이 보편화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복합지능(M.I.)과 복합현실(M.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합쳐진 것)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사회가 초지능(Singularity,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의 도래보다는 복합지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 BTS로 시작한 K-culture 확산

- ◆ BTS는 K-POP을 넘어 WORLD POP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원차트 뿐 아니라 정상에 있는 팝가수들과의 융합과 협업으로 인기와 신뢰를 축적했다. 게다가 2020-2021시즌 미국 최고의 음원차트인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1위에 다섯 곡이나 이름을 올렸고 BTS곡끼리 서로 1위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최근 LA에서 공연한 BTS는 총 4회 공연으로 20만 명을 동원하여 약 400억 원을 벌어들이며 9년 만에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흥행기록을 냈다. BTS의 지속 가능 비결은 성실, 지속, 재능, 헌신, 공감, 드림과 이름의 본체를 이룬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BTS 노래의 가사를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BTS를 응원하였고, 이는 BTS를 세계 최정상급으로 이끌었다.
- ◆ 세계 최정상급으로 우뚝 선 BTS가 최근 군복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 이는 정치권의 과잉 부추김이 내재되어 있다. BTS는 이전 군복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몇몇하게 한국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소속사인 하이브는 내심 면제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하이브는 BTS 매출 의존도가 크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BTS 군 면제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견해는 나뉘진다. 군 면제제도 자체를 전면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이 선심 쓰듯이 할 일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과 백척간두진일보의 심정으로 가야한다. 군의 긍정효과를 글로벌화 하는데

BTS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BTS가 통련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K-culture 세계화의 교훈과 과제

- ◆ 이제는 fast follower 시기의 국내 중심, 개도국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시대 first mover 입장에서 방향설정과 입장정리, 선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인류보편가치 구현 차원에서의 상호교류, 세계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혜적 관점이나 자만은 금물이다. 지구적 표준에서 사고, 기획,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문화의 일방공급자에서 문화다양성 존중과 호혜적인 교류를 지향해야 한다. 한류의 뿌리문화에 대한 체계화, 정통과 변용의 공존과 발전이 중요하다. 한국어와 한글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예술인의 언어사용과 생활 규범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 ◆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기조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면 안 된다. 예술의 전위성과 반체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의 보루이다. 또한, 문화의 독립변수성과 선도위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는 인류와 민족흐름의 축적이며 나아가 문화현상이 정치경제를 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문화현상이 반도성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인식과 행동이 전환된다.
- ◆ 문화를 정치·경제·사회 활동의 수단화 혹은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문화적 환경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문화 활동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한 단계 성숙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예술인 동원 행태를 탈피하고 정치인이 예술현장을 찾아가는 등, 문화인식의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 외교안보 대응에서도 문화의 힘을 활용하고 발현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